

뉴로메카 (348340)

너만 보인단 말이야~

회사개요

뉴로메카는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3년 설립, 16년 협동로봇 인디 출시, 18년 델라로봇 D 출시 및 자동화 사업 개시, 22.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프레스 공정, 조립/용접, 머신텐딩 등 다양한 국내 제조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모터, 감속기 등 제품 기술 자체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H/W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장 내 CAPA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 로봇(F&B, 의료) 진출도 기대

교촌에프앤비와 3년간 협동로봇 기반 조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2023년 1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교촌치킨은 국내 전국에 1,3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00개 내외 매장에서의 로봇 도입이 기대된다. 23.10월 교촌치킨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로봇 조리 자동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년부터 관련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23.4월 국내 관절수술로봇인 큐렉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7월에는 90억원(200대)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의 기술력이 의료로봇분야에도 적용되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의료 및 수술로봇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제조업 용접로봇 시장 진출 기대

용접산업은 기초산업부터 최첨단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최근 국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용접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3D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용접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용접로봇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용접공 근로자의 수는 12.7만명이다. 용접공 수의 1%가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연간 1,200대 이상의 시장의 형성될 수 있다. 초기 시장 진출 및 레퍼런스 확보가 향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NOT RATED (M)

목표주가 원 (M)

현재주가 (1/08) **39,3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4,111억원

총발행주식수 10,446,27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42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414,969주

52주 고/저 46,950원 / 14,900원

외인지분율 1.04%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박종훈 외 3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23.0 18.5 164.1

상대 16.1 10.0 106.9

절대 (달러환산) 22.1 21.6 154.6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72	41	74	98
영업이익	-53	-82	-30	-78
지배순이익	-30	-83	-66	-82
PER	-	-	-	-17.0
PBR	-	-	-	4.2
EV/EBITDA	-	-	-	-19.2
ROE	-29.1	-132.5	-74.3	-29.7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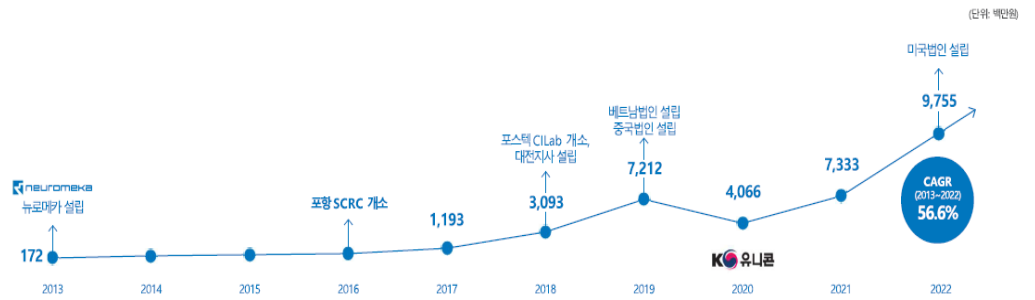
너만 보인단 말이야~

회사소개

뉴로메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협동로봇 (Collaborative Robot, Cobot)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협동로봇 인디 출시, 2018년 포스텍과 CI(Cobot Intelligence)랩 개소, 2018년 델라로봇 D 출시 및 자동화 사업 개시, 2022.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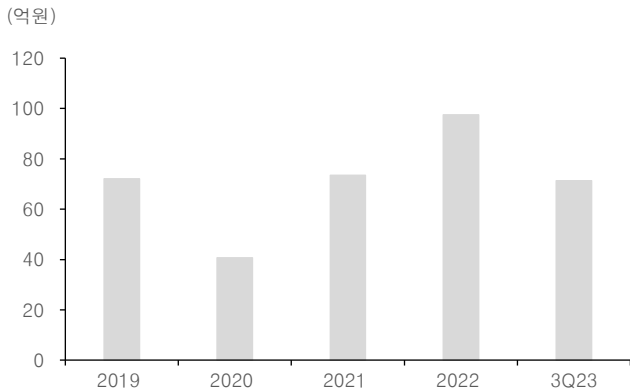
프레스 공정, 조립/용접, 머신텐딩 등 다양한 국내 제조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모터, 감속기 등 제품 기술 자체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H/W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장 내 CAPA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1] 뉴로메카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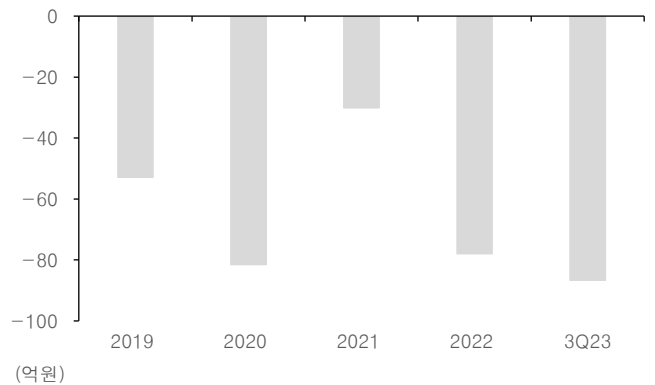
자료: 뉴로메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매출액 추이



자료: 뉴로메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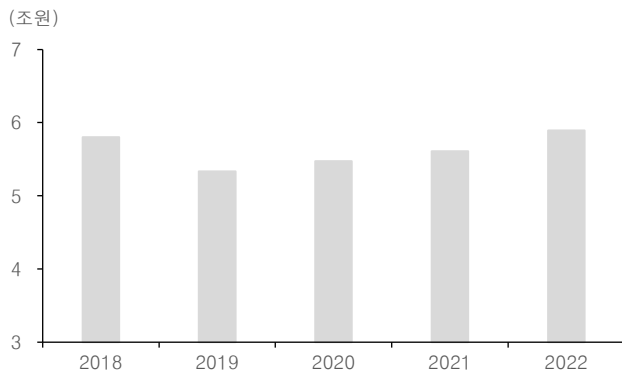
자료: 뉴로메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로봇산업 현황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일)의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로봇산업 매출 규모는 2019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 이후 2020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생산규모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2년 전년대비 7.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체수는 2019년 10.9% 역성장 이후 2020~2022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2018년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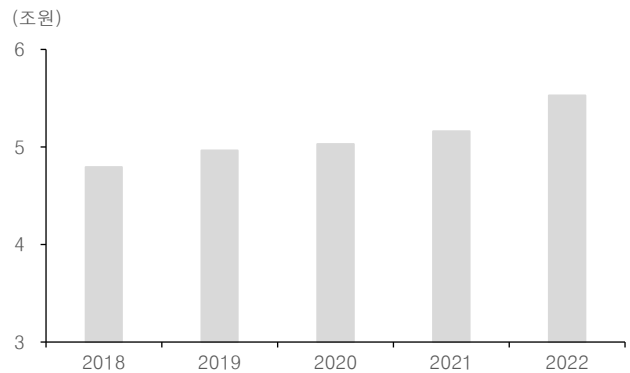
매출액/생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요에 맞는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안정적인 재고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률 개선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생산규모와 사업체 수 추이를 감안할 경우 로봇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4]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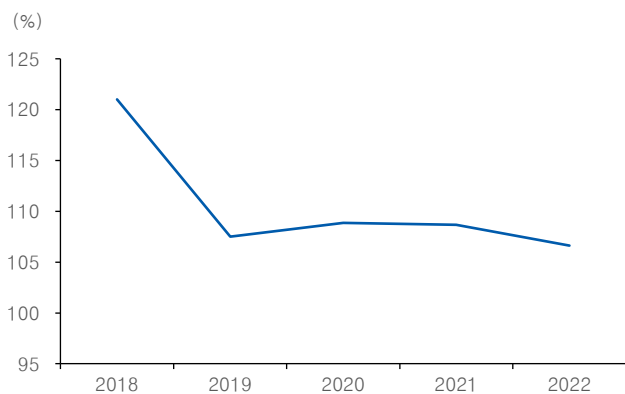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국내 로봇산업 생산규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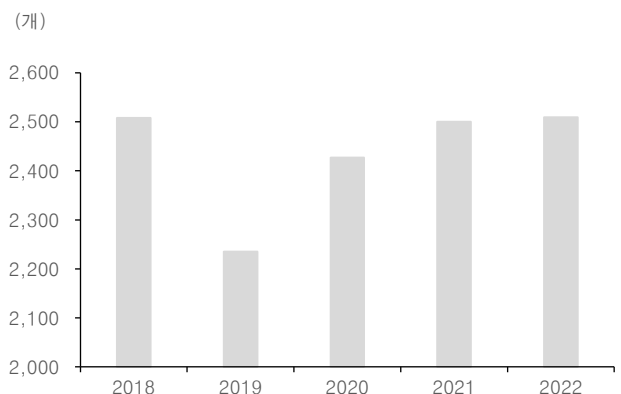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국내 로봇산업 생산액 대비 매출액 비중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 추이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로봇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제조업 제품 생산에서 출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용 로봇, 불특정다수를 위한 서비스제공 및 전문화 수행 로봇인 전문서비스용 로봇, 인간의 생활 범주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SW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로봇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제조업용 로봇의 매출 규모는 2.97조원으로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비중도 8.4%p 하락(2018년 M/S 58.9%)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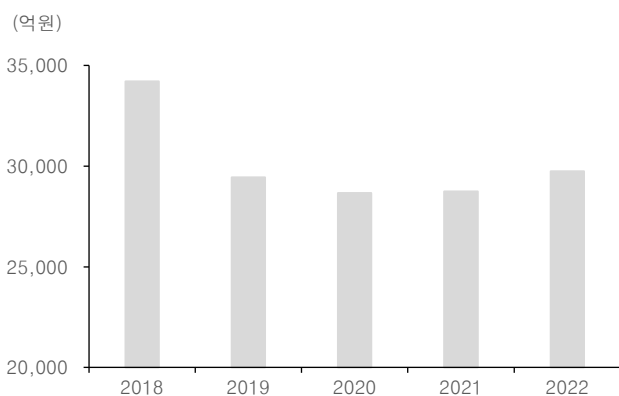
둘째, 서비스용 로봇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 및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2018년 대비 4.1%p, 1.4%p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전문서비스용 로봇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코로나19로 인해 로봇 매출이 감소되었던 2019년도에 성장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로봇에서 서비스용 로봇, 특히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로봇부품 및 SW 역시 로봇산업 성장에 연동되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개인서비스용 로봇 대비 매출 성장률(CAGR 3.1%, 2018~2022년)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넷째, 수출/수입 현황을 통해 수입성장률이 수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은 전문서비스용 로봇, 수입은 개인서비스용 로봇이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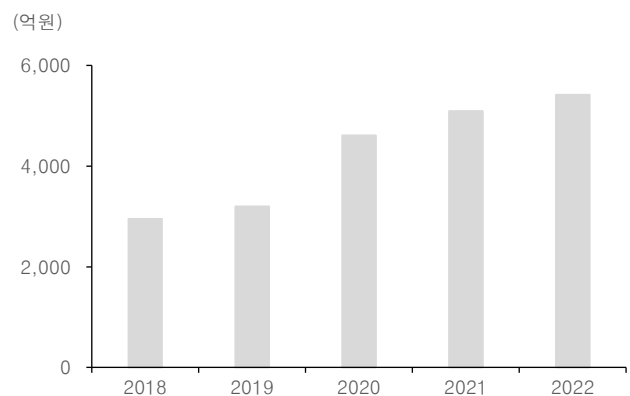
이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은 1)서비스용 로봇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불특정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 수행 역할을 하는 전문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다. 3) 로봇부품 및 SW 성장률이 서비스용 로봇 성장률 대비 낮다는 것을 통해 로봇 부품보다는 완제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8] 국내 제조업용 로봇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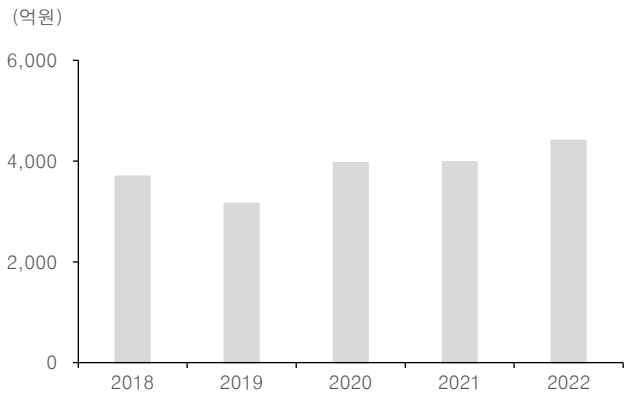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전문서비스용 로봇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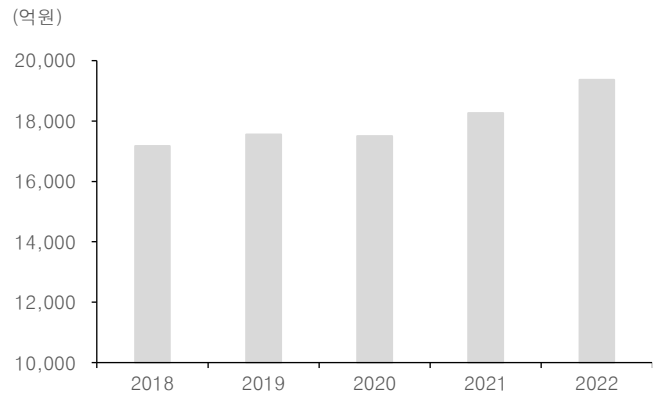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개인 서비스용 로봇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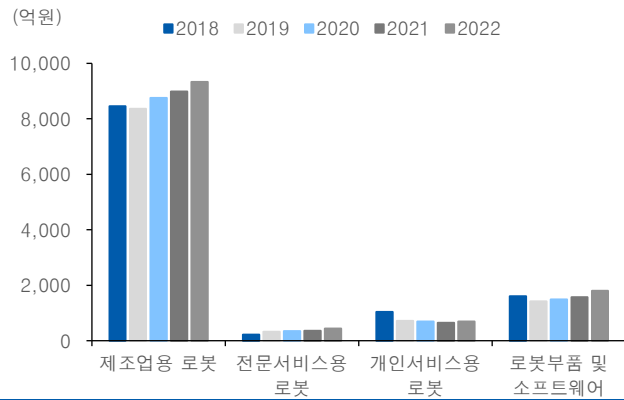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로봇부품 및 SW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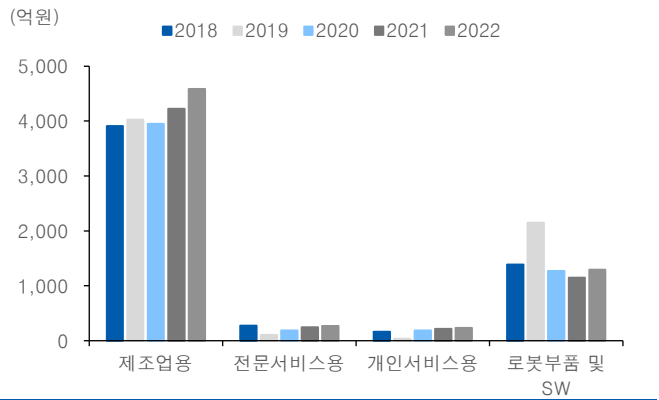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최근 5개년도 로봇 수출현황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최근 5개년도 로봇 수입현황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조업용 로봇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

제조업용 로봇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로봇은 이적재용 및 핸들링 로봇이며, 조립/분해/접착 로봇, 측정/검사 로봇이 그 다음이다.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의료용 로봇이 가장 크며,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가사용 로봇과 교육용 로봇의 비중이 높다. 로봇부품 및 SW에서는 로봇 구동부품 부품과 로봇 제어용 부품 제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제조업용에서는 Robot Arm, AGV/AMR, Inspection, 2)전문서비스용은 수술로봇, 3)개인서비스용은 Home Care 및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구동과 제어 관련 부품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제조업용 협동로봇 뿐만 아니라 용접로봇, 수술로봇, 치킨로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4] 제조업용 로봇 생산 현황(2022년)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전문서비스용 로봇 생산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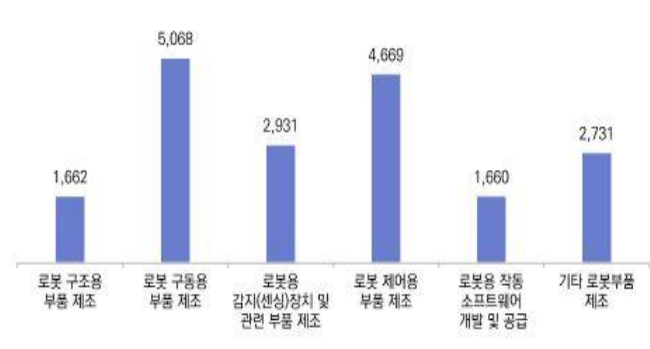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개인서비스용 로봇 생산 현황(2022년)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로봇부품 및 SW 생산 현황(2022년)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2.27),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성장 동력 1. 제조업용 로봇: 용접로봇

23년 3월, 동사는 협동로봇을 적용한 신개념 용접 솔루션을 공개했다. 3차원 카메라를 통해 용접 특이점 자동 추출이 가능하여 협동로봇 기반 솔루션으로 용접선으로부터 용접봉까지의 좌우 오프셋과 거리를 동시에 보정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다.

용접산업은 기초산업부터 최첨단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용접원은 용접과 절단기술, 자재, 장비, 제반요건 등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각종 금속자재 및 부품을 용접하는 용접지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최근 국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용접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용접원들의 고용 및 채용이 원활하지 않다. 강한 빛과 열,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 실내작업의 경우 작업장 내 먼지와 오물 등으로 호흡기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으로 3D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은 숙련도에 따라 기술적 차이가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고령화, 인건비 상승, 노동조합 등의 이슈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3.1H) 용접원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3년 16.3만명에서 2015년 18.2만명으로 증가, 이후 2022년(12.6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들어서는 12.7만명(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방산업의 업황에 따라 용접원의 인력 변동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무려 5.6만명, 44%가 감소되었다.

용접로봇이 용접공의 급여 및 연봉 대비 적정수준으로 제품 가격이 책정될 경우 빠른 속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직원채용 시 고정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업무가 집중될 경우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통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연도별 용접원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황에 따라, 수주에 따라 필요인원이 가변적이다. 둘째, 교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조선/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2~3교대를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 로봇 도입 시 1명 이상의 업무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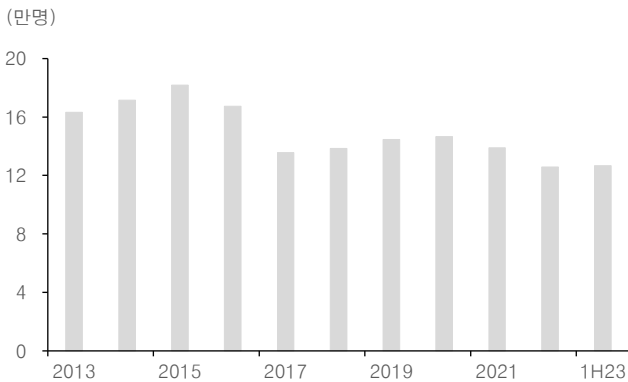
알바천국을 통해 최근 용접 가능인력의 인건비를 살펴보았다. 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대 후반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로봇이 2명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접로봇의 국내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2022년 말 용접공 수의 1%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1,000대 이상의 용접로봇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2025년까지 5%로 확대된다고 가정해보면 6,000대 용접로봇 시장이 형성된다.

용접로봇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비용 개선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용접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황이다. 초기 시장 진입, 안정적인 공급, 진입이후 제품 안정성 등 레퍼런스가 확보된다면 향후 장기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국내 조선사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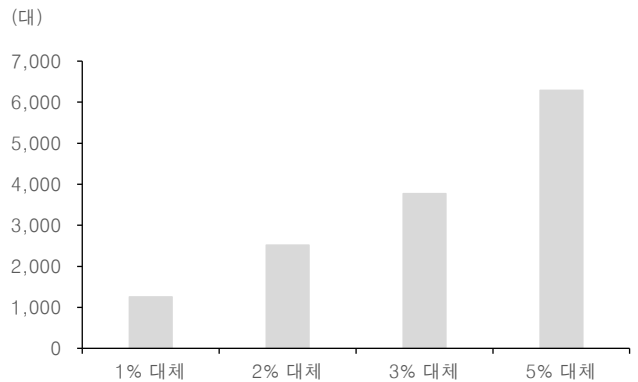
용접원 이외에도 금형/주조 및 단조원,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등도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고 판단된다(그림20, 그림21). 23년 상반기 기준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근로자는 19.2만명, 금형/주조 및 단조원 근로자는 5.0만명으로 24만명을 상회한다. 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요인이다.

[그림18] 연도별 용접원 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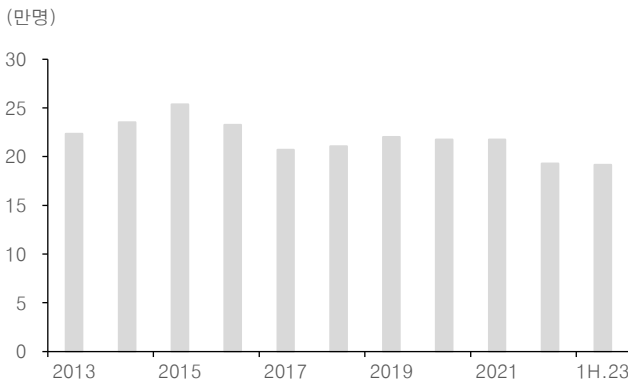
자료: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용접로봇 예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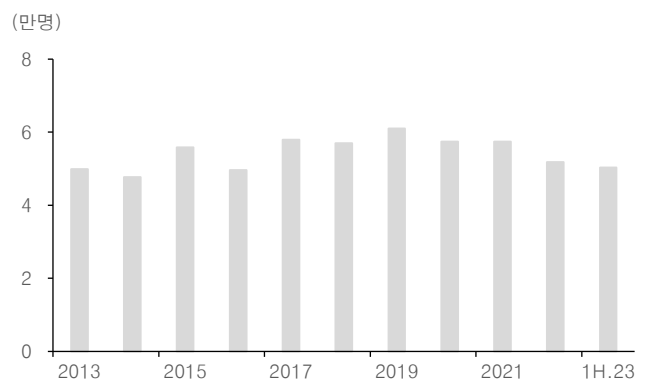
자료: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연도별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근로자 추이



자료: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연도별 금형/주조 및 단조원 근로자 추이



자료: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성장 동력 2. 전문서비스용 로봇: F&B, 의료

1) 전문서비스용 로봇_F&B

동사는 교촌에프앤비와 3년간 협동로봇 기반 조리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2023년 1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시간당 30마리의 닭을 튀길 수 있으며, 기기 탈부착 가능, 용이한 세척, 원격 유지보수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두산로보틱스와도 2023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6개의 튀김 바스켓을 동시에 활용, 시간당 최대 24마리를 튀길 수 있다. 튀김 기기가 상단에 설치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기름교체, 바닥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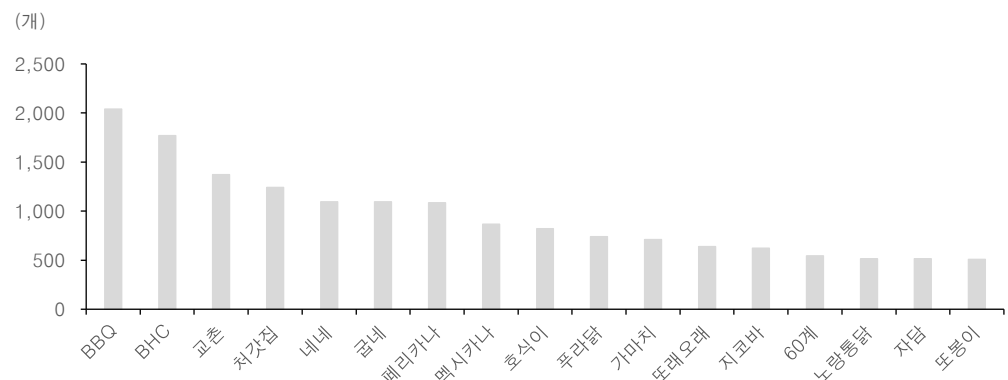
교촌치킨은 국내 전국에 1,3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5년 내 전체 매장의 70%에서 로봇을 도입, 두산로보틱스와 절반씩 수주받겠다고 가정 시 연 100대 내외의 로봇판매가 이뤄질 것이다. 동사는 2023년 10월 교촌치킨(교촌에프앤비)의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로봇 조리 자동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년부터 관련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2023년 기준 국내 매장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BBQ, BHC, 처갓집 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치킨 등 총 6개가 있다. 500개 이상 매장으로 확대하면 총 15개의 브랜드가 존재한다. 2022년 기준 천개 이상 브랜드의 총 매장수는 8,530개, 500개 이상은 14,159개다. BHC(LG전자)를 제외하면 매장수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는 로봇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로봇도입을 통해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이 확인될 경우 타 브랜드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이 비교우위 포지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문서비스용 로봇_의료로봇

인공관절로봇 등 의료용 로봇 개발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4월 국내 관절수술로봇인 큐렉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의료로봇의 조인트 모듈, 매니플레이터, 제어기 개발과 생산분야 협력이 목적이었다. 3개월 후인 2023년 7월에는 90억원(200대)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의 기술력이 의료로봇분야에도 적용되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의료 및 수술로봇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그림22] 2023년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수 상위 10개사 12,000개 상회



자료: 언론 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뉴로메카 (34834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결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0	72	41	74	98
매출원가	0	58	38	55	86
매출총이익	0	14	2	18	12
판매비	0	67	84	48	89
영업이익	0	-53	-82	-30	-78
EBITDA	0	-46	-72	-21	-69
영업외손익	0	23	-1	-36	-4
외환관련손익	0	0	-1	1	1
이자손익	0	-33	-4	-5	0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0	56	4	-32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	-30	-83	-66	-82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순이익	0	-30	-83	-66	-82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0	-30	-83	-66	-82
지배지분순이익	0	-30	-83	-66	-82
포괄순이익	0	-30	-83	-66	-82
지배지분포괄이익	0	-30	-83	-66	-82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결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영업활동 현금흐름	0	-71	-40	-11	-80
당기순이익	0	-30	-83	-66	-82
감가상각비	0	6	9	9	8
외환손익	0	0	1	-1	-1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0	-31	10	-1	-16
기타현금흐름	0	-16	22	49	11
투자활동 현금흐름	0	98	22	-46	-193
투자자산	0	0	5	3	-22
유형자산 증가 (CAPEX)	0	-13	-1	-2	-30
유형자산 감소	0	21	0	0	0
기타현금흐름	0	90	18	-47	-140
재무활동 현금흐름	0	-20	44	135	261
단기차입금	0	28	59	-20	-44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8	-4	-2	-2
자본	0	269	0	197	4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0	-325	-11	-40	304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0	0	0
현금의 증감	0	7	26	78	-11
기초 현금	0	2	9	35	113
기말 현금	0	9	35	113	102
NOPLAT	0	-53	-82	-30	-78
FCF	0	-84	-41	-13	-110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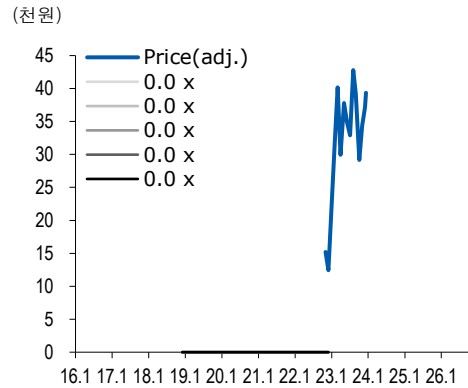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증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결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유동자산	0	115	86	221	394
현금및현금성자산	0	9	35	113	10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27	7	27	33
재고자산	0	56	38	31	29
비유동자산	0	36	35	23	45
유형자산	0	15	13	11	37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 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0	7	1	4	2
자산총계	0	151	121	243	438
유동부채	0	37	91	85	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8	4	15	15
단기차입금	0	0	30	30	2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0	10	8	3	1
장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0	48	99	88	41
지배지분	0	103	22	156	397
자본금	0	7	7	8	52
자본잉여금	0	263	263	458	418
이익잉여금	0	-172	-255	-321	-83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0	103	22	156	397
순차입금	0	5	52	-90	-288
총차입금	0	36	91	6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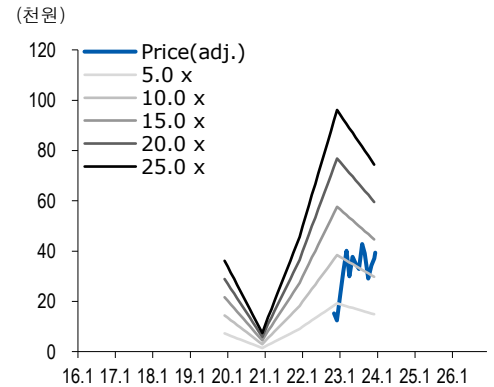
결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EPS	0	-1,206	-1,242	-914	-950
BPS	0	1,448	298	1,828	3,844
EBITDAPS	0	-675	-992	-271	-783
SPS	0	1,050	562	938	1,107
DPS	0	0	0	0	0
PER	-	-	-	-	-17.0
PBR	-	-	-	-	4.2
EV/EBITDA	-	-	-	-	-19.2
PSR	-	-	-	-	14.6

결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증가율 (%)	0.0	0.0	-43.6	80.8	32.7
영업이익 증가율 (%)	na	0.0	0.0	0.0	0.0
지배순이익 증가율 (%)	na	0.0	0.0	0.0	0.0
매출총이익률 (%)	0.0	20.1	6.1	25.0	11.8
영업이익률 (%)	0.0	-73.3	-200.6	-40.9	-79.9
지배순이익률 (%)	0.0	-41.5	-203.4	-89.7	-84.1
EBITDA 마진 (%)	0.0	-64.3	-176.6	-28.8	-70.7
ROIC	0.0	-57.9	-110.6	-53.7	-97.2
ROA	0.0	-19.8	-60.9	-36.2	-24.1
ROE	0.0	-29.1	-132.5	-74.3	-29.7
부채비율 (%)	0.0	46.5	451.6	56.3	10.3
순차입금/자기자본 (%)	0.0	4.4	236.5	-57.6	-72.5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0.0	-1.6	-16.9	-5.6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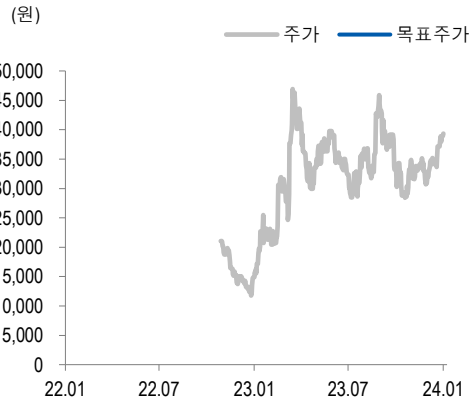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뉴로메카 (3483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1-09	NOT RATED	-	1년		
2024-01-0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8.7
Hold(중립)	11.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01-08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